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Morning Brief

하루에 하나



2026.8.13

AUGUST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원/달러 환율

1,415.80원 (+2.30원)

KOSPI

6,579.04 (+233.51, +3.68%)

KOSDAQ

858.91(+1.07, +0.12%)

국고채 10년 금리

4.294(-0.007%p)

동 자료는 오늘 발간된 자료의
요약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각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hanafn.com



기업분석

KT	AI 요금제 시도 긍정적, 이제 장기 매수는 괜찮습니다 [김홍식]
한국콜마	하반기는 더 크다 [박종대]
JYP Ent	남들은 다 겪었던 시간이 뒤늦게 다가오고 있다 [이기훈]
SK오션플랜트	하반기 매출 감소 예상. 다만 전방 시장은 확대 중 [유재선]
한국전력	특이사항 없이 부진했던 실적 [유재선]
한미약품	비만 파이프라인 성과와 MSD의 반전을 기다리며 [김선아]
더블유게임즈	환율 대비 아쉬운 실적 [이준호]

글로벌리서치

CoreWeave	FY 2Q26: 엔비디아의 전진기지 성장성과 수익성 양호 [강재구]
금력영자	2Q26 Pre: 희토류 강세 속 견조한 실적 [송예지]

단기투자유망종목

삼성전자, 삼성전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에이피알, S-Oil, CJ제일제당, GS건설, 세아베스틸지주
RFHIC, 에이유브랜즈

하나증권

2026년 08월 13일 | 기업분석_기업분석(Report)

BUY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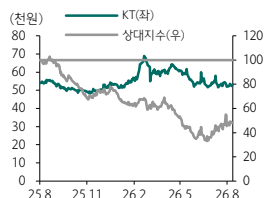
목표주가(12M) 76,000원
현재주가(8.12) 52,700원

Key Data

KOSPI 지수 (pt)	6,579.04
52주 최고/최저(원)	68,900/48,250
시가총액(십억원)	13,281.5
시가총액비중(%)	0.25
발행주식수(천주)	252,021.7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454.8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24.7
외국인지분율(%)	49.00
주요주주 지분율(%)	
연대자동차 외 1인	8.07
국민연금공단	7.05

Consensus Data

	2026	2027
매출액(십억원)	27,593.9	28,198.4
영업이익(십억원)	2,060.2	2,257.5
순이익(십억원)	1,534.7	1,680.6
EPS(원)	5,690	6,273
BPS(원)	78,440	82,201

Stock Price**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액	26,431.2	28,244.2	27,767.0	29,466.9
영업이익	809.5	2,469.1	2,049.7	2,088.5
세전이익	584.7	2,418.1	2,090.3	2,133.9
순이익	470.3	1,731.0	1,447.9	1,521.2
EPS	1,850	6,869	5,745	6,036
증감율	(52.41)	271.30	(16.36)	5.07
PER	23.70	7.66	9.19	8.75
PBR	0.67	0.73	0.69	0.66
EV/EBITDA	4.31	3.63	3.67	3.47
ROE	2.85	10.22	7.93	7.87
BPS	65,177	71,886	76,641	80,418
DPS	2,000	2,400	2,400	2,400



Analyst 김홍식 pro11@hanafn.com
RA 이상훈 sanghunlee0121@hanafn.com

KT (030200)**AI 요금제 시도 긍정적, 이제 장기 매수는 괜찮습니다****투자의견 매수/12개월 목표가 76,000원 유지, 업황 회복 기대한 장기 매수 추천**

KT에 대한 매수 투자 의견과 12개월 목표주가 76,000원을 유지한다. 이제 장기적으로는 적극 매수 전환이 나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 추천 사유는 1) 9만원 이상에서 AI 플러스 요금제를 출시하면서 장기 ARPU 상승 기대감이 생겨날 전망이고, 2) 경쟁사들과 마찬가지로 2027년 국내 AI 기지국 활성화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며, 3) PBR로 보면 절대 저평가 상태이기 때문이다. 단기 주가 상승을 이끌만한 특별한 재료가 눈에 띄지 않는 상황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통신 업황 회복 기대감이 KT 주가 상승을 견인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으로 55,000원 이하에서는 적극 매수로 대응해도 괜찮을 것 같다.

2분기 본사 영업이익의 3,890억원으로 부진, 단기 매출/영업비용 흐름 좋지 않아

2026년 2분기 KT 본사 영업이익은 3,890억원(-17% YoY, +23% QoQ)으로 당사 예상치에 부합했으며 부진하였다. 1) 5G 가입자 이탈에 따른 이동통신서비스 매출액 감소, 2) 인건비 및 제반 경비 증가 때문이었다. 위약금 면제/고객 감사 패키지 제공 영향이 줄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2분기 KT 서비스매출액 동향과 영업비용이 좋은 흐름은 아니었다. 2분기 본사 순이익은 전분기대비 감소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영업외비용으로 54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반영하였기 때문이었다. 결국 상반기 누적 본사 순이익은 6,253억원을 기록했다. KT는 본사 조정 순이익의 50%를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 올해 배당 증가 가능성은 낮아졌다. 한편 2분기 연결 영업이익 역시 6,483억원(-36% YoY, +34% QoQ)으로 전년동기비 큰 폭의 이익 감소 양상을 나타냈다. 부동산 분양 수익 감소 영향이 컸다. 단, 컨센서스보다 높은 연결 영업이익을 달성하였는데 KT에스테이트를 포함한 자회사 이익 기여도 증가 영향이 컸다. 2026년 2분기 자회사 이익 기여도는 2,593억원을 기록하면서 역대급으로 크게 증가했다.

배당 매수세 유입 제한적, 하지만 AI 요금제 개편 성과 나오면 주가 오를 것

현 시점에서 적극적인 KT 배당 매수세를 기대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국내 국고채 3년물 금리가 3.8%에 달한 상황이고 추가 정책 금리 인상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감안 시 그렇다. 제 2 금융권의 수신 금리를 감안하면 4.5%에 달하는 KT 기대배당수익률이 크게 매력적으로 다가오진 않는다. 올해 KT 배당금 증가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낮은 기대배당수익률을 투자자들이 용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희망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예상대로 AI를 결합한 요금제를 출시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고가 요금제에 공짜로 제공하거나 요금제에 AI 요금을 일부 할인해주는 방식으로 적용하기 시작했다. 아직은 갈 길이 멀지만 고가 요금제 유입 효과가 나타난다면 장기 이익 성장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KT 주가 상승이 나타날 것이라 판단이다.

2026년 08월 13일 | 기업분석_Earnings Review

BUY (유지)

목표주가(12M) 180,000원(상향)
현재주가(8.12) 132,500원

Key Data

KOSPI 지수 (pt)	6,579.04
52주 최고/최저(원)	132,500/61,100
시가총액(십억원)	3,127.7
시가총액비중(%)	0.06
발행주식수(천주)	23,605.1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336.4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35.0
외국인지분율(%)	39.82
주요주주 지분율(%)	
한국콜마홀딩스 외 22 인	26.58
국민연금공단	12.80

Consensus Data

	2026	2027
매출액(십억원)	3,077.6	3,399.5
영업이익(십억원)	315.4	367.3
순이익(십억원)	229.4	271.3
EPS(원)	7,389	8,791
BPS(원)	45,161	53,238

Stock Price**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액	2,452.1	2,722.4	3,229.9	3,745.2
영업이익	193.9	239.6	346.5	412.4
세전이익	139.8	211.7	322.8	393.3
순이익	90.1	125.1	204.0	257.1
EPS	3,830	5,299	8,641	10,891
증감율	1,587.22	38.36	63.07	26.04
PER	14.39	11.72	15.33	12.17
PBR	1.64	1.61	2.86	2.35
EV/EBITDA	10.34	9.13	7.93	6.51
ROE	12.50	14.69	20.35	21.21
BPS	33,579	38,566	46,343	56,370
DPS	720	864	864	864



Analyst 박중대 forsword@hanafn.com
RA 양정석 jsyang@hanafn.com

한국콜마 (161890)

하반기는 더 크다

2분기 영업이익 1,103억원(YoY 50%) 달성

2분기 연결 매출은 8,613억원(YoY 18%), 영업이익은 1,103억원(YoY 50%)으로 시장 기대치(OP 949억원)를 훨씬 넘어서는 호실적을 기록했다. 한국 ODM 역사상 처음으로 분기 영업이익 1,000억원을 돌파했다. 국내 사업이 YoY 31% 성장하면서 실적 개선을 견인했다. 가동률은 81%에 이르렀고, 선케어 매출 비중이 35%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영업이익률도 16.4%로 신기록을 세웠다. 전년도 높은 베이스를 감안하면 탁월한 실적이다. 북미 사업(OP -23억원)은 아쉬움이 있으나, 연우 실적 개선(매출 YoY 29%, OP 70억원(YoY +62억원))은 고무적이다.

하반기 영업이익 YoY 48% 증가 전망

회사 측에서는 3분기 실적 가이드ansom으로 국내 매출 4,300억원(OPM 15% 이상), 중국 매출 YoY 10%(BEP), 미국 매출 100억원 후반(OP -20억원), 캐나다 매출 90억원(OP -10억원), 연우 매출 800억원(OP 10억원)을 제시했다. 4분기 비수기를 감안해도 국내 매출은 연간 최소 1.5조원 이상 가능할 것으로 추산한다. 선케어 이외 기초 카테고리 매출 규모가 크게 늘면서 3분기 영업이익률이 2분기에 비해 크게 떨어지지 않을 듯하다. QoQ 조업일수 감소를 아웃소싱과 자동화 설비교체, 초과근무 등으로 메워나가고 있다. 국내 생산 Capa는 7.78억개(QoQ+천만개) 수준이다. 글로벌 MNC향 기초 제품 출시 이후 양호한 시장 반응으로 신규 대형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목표주가 14->18만원 상향 조정, 레벨업 국면

실적 추정치 상향 조정으로 목표주가를 14만원에서 18만원으로 올린다. 18만원은 12MF PER 18배를 적용한 수치이다. 2026년 한국 화장품 산업은 YoY 30% 이상 수출이 증가하면서 역대 최대 글로벌 모멘텀을 향유하고 있다. 특히, 유럽/미국 수출을 기초 카테고리가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콜마는 최대 수혜 ODM 업체다. 글로벌 MNC향 기초 제품 성과에 따라 글로벌 럭셔리 기초 카테고리까지 ODM 영역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실적은 예상을 웃도는 모습이 이어질 수 있으며, 밸류에이션은 정상화될 것이다. 사업 규모의 한단계 레벨업과 함께 EPS와 밸류에이션이 동시 올라가는 높은 주가 모멘텀이 예상된다.

2026년 8월 13일 | 기업분석_Earnings Review

BUY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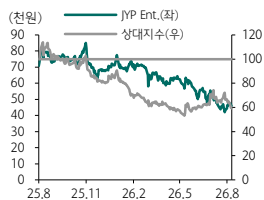
목표주가(12M) 58,000원(하향)
현재주가(8.12) 46,000원

Key Data

KOSDAQ 지수 (pt)	858.91
52주 최고/최저(원)	85,000/42,000
시가총액(십억원)	1,634.5
시가총액비중(%)	0.35
발행주식수(천주)	35,532.5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217.8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11.2
외국인지분율(%)	17.98
주요주주 지분율(%)	
박진영 외 3인	15.95

Consensus Data

	2026	2027
매출액(십억원)	867.5	944.9
영업이익(십억원)	167.7	188.9
순이익(십억원)	132.5	145.0
EPS(원)	3,726	4,084
BPS(원)	21,933	25,599

Stock Price**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액	601.8	821.9	822.5	773.9
영업이익	128.3	155.2	157.9	145.7
세전이익	136.2	223.4	166.4	154.4
순이익	97.8	160.6	120.4	111.7
EPS	2,751	4,519	3,390	3,145
증감율	(7.40)	64.27	(24.98)	(7.23)
PER	25.41	16.07	13.57	14.63
PBR	5.06	4.08	2.26	2.02
EV/EBITDA	15.96	12.78	9.51	10.11
ROE	22.41	29.21	18.08	14.82
BPS	13,811	17,807	20,362	22,771
DPS	534	877	772	710



Analyst 이기훈 sacredkh@hanafn.com

JYP Ent. (035900)**남들은 다 겪었던 시간이 뒤늦게 다가오고 있다****목표주가 하향**

트와이스는 향후 블랙핑크와 비슷한 ‘따로 또 같이’의 형태로 2~3년에 1번 컴백할 가능성이 높다. 스트레이키즈 역시 정해진 바 없지만 2027년부터 멤버들의 순차적인 군입대가 예정되어 있다. 빠르면 2027년, 늦어도 2028년부터는 역성장이 나타날 수 밖에 없다. 타 기획사 역시 동방신기, 빅뱅, BTS 등 핵심 남자 IP의 군입대 구간에서는 실적과 주가 모두 부진했으며, 완전체 제대 전 약 6개월 전부터 주가를 회복했다. 실적과 목표 P/E 하향으로 목표주가를 58,000원(-27%)으로 하향하며, 밸류에이션 매력은 높지만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2Q Review: OP 310억원(-41 %YoY)

2분기 매출액/영업이익은 각각 1,831억원(-15% YoY)/310억원(-41%)으로 컨센서스(381억원)를 하회했다. 앨범은 스트레이키즈의 구보(42만장)가 또 한 번 호조를 보였으며, ITZY/엔믹스/킥폴립 등이 컴백하면서 약 240만장이 판매되었다. 다만, 50만장 이상 판매한 앨범이 부재해 제작비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콘서트는 약 115만명으로 트와이스의 일본 국립경기장 3회(24만명) 포함 월드투어와 2PM의 도쿄 돔 2회, 니쥬의 일본 돔 4회 등이 반영되었다. MD는 전술한 트와이스의 월드투어 및 글로벌 스키주 캐릭터 팝업스토어 등이 반영되었지만, 전년 스트레이키즈 투어의 높은 역 기여효과로 매출 439억원(-36%)을 기록했다. 비용도 예상보다 30억원 내외 상승하면서 이익은 부진했으며, 영업외로는 외화 환산손익 약 100억원과 피투자사 금융자산 평가이익 60억원 감소가 반영되었다.

저연차 아티스트들의 더 가파른 성장이 필요하다

스트레이키즈는 컴백 후 하반기에 한국/아시아 중심으로 18회, 2027년에는 서구권 지역으로 회차를 추가할 예정이며, 9월에는 브라질 음악 축제 ‘Rock in Rio’의 헤드라이너 및 남미 3개 도시에서 자체 페스티벌을 기획하고 있다. 전세계 주요 도시에서 연계된 도시 팝업 확대로 가파른 콘서트 및 MD 매출 확대가 예상된다. 다만, 트와이스의 경우 재계약 이슈가 발생했다. 공연 관객 수 기준으로 트와이스의 JYP 내 비중은 약 25%이며, 지난 1년간 360도 월드투어의 공연 회차만 81회로 관련 실적(콘서트 및 MD 등) 공백이 나타날 수 밖에 없다. 킥폴립 이하 저연차 아티스트들의 더욱 가파른 성장이 필요한 상황이다.

2026년 8월 13일 | 기업분석_Earnings Review

BUY (유지)

목표주가(12M) 25,000원
현재주가(8.12) 14,250원

Key Data

KOSPI 지수 (pt)	6,579.04
52주 최고/최저(원)	30,300/11,700
시가총액(십억원)	890.3
시가총액비중(%)	0.02
발행주식수(천주)	62,478.1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1,792.9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30.0
외국인지분율(%)	5.24
주요주주 지분율(%)	
에스케이에코플랜트	35.62
송무석 외 4인	8.81

Consensus Data

	2026	2027
매출액(십억원)	683.2	1,074.9
영업이익(십억원)	70.2	110.5
순이익(십억원)	44.9	76.7
EPS(원)	719	1,218
BPS(원)	13,579	14,795

Stock Price**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액	662.6	965.4	665.2	687.5
영업이익	41.8	59.5	67.3	76.2
세전이익	17.6	45.9	54.4	63.8
순이익	16.4	37.8	42.2	48.5
EPS	277	625	675	777
증감율	(73.39)	125.63	8.00	15.11
PER	46.46	32.40	21.11	18.34
PBR	1.07	1.55	1.04	0.98
EV/EBITDA	12.71	18.80	13.42	12.01
ROE	2.34	4.96	5.05	5.51
BPS	11,974	13,037	13,713	14,489
DPS	0	0	0	0



Analyst 유재선 jaeseon.yoo@hanafn.com
RA 박시현 boxhyun@hanafn.com

SK오션플랜트 (100090)**하반기 매출 감소 예상. 다만 전방 시장은 확대 중****목표주가 25,000원, 투자 의견 매수 유지**

SK오션플랜트 목표주가 25,000원,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한다. 2분기 실적은 시장 기대치를 상회했다. 환율 약세로 인한 긍정적 효과와 해상풍력 매출 비중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간주된다. 연초 계획과 달리 일부 해상풍력 프로젝트 매출 인식 부재로 하반기에도 외형 감소가 이어질 수 있다. 이번 2분기 신규 수주는 강관 및 플랜트 139억원, 상선/MRO 151억원으로 290억원을 기록했다. 기말 수주잔고는 11,072억원을 기록했고 해상풍력 9,059억원, 특수선 1,159억원, MRO 746억원 등으로 구성된다. 2026년 기준 PER 21.1배, PBR 1.04배다.

2Q26 영업이익 193억원(YoY +24.4%)으로 컨센서스 상회

2분기 매출액은 1,705억원으로 전년대비 29.1% 감소했다. 해상풍력은 1,060억원으로 전년대비 1.0% 증가했지만 특수선이 460억원으로 61.8% 줄어든 영향이다. 환율 상승 효과가 매출에 우호적으로 작용했으나 특수선 잔고 감소에 의한 외형 둔화를 극복하기는 어려웠다. 해상풍력은 대만 Formosa4와 Fengmiao 프로젝트가 정상적으로 실적에 반영되는 중이다. 특수선은 해군 호위함 Batch-III 2번함 조기 인도 완료로 매출이 전년대비 감소했지만 MRO 상선 부문 매출 163억원이 반영되며 전분기대비 개선되었다. 영업이익은 193억원으로 전년대비 24.4% 증가했다. 매출 감소에도 분기 마진은 11.3%로 전년대비 4.9%p 개선되었다. 환율 상승 효과에 더해 전사 매출에서 해상풍력의 비중이 62%로 전년대비 18.6% 증가한 영향이다.

국내외 해상풍력 확대 기조. 중장기 수주 흐름 양호할 전망

단기적으로는 안마도해상풍력 프로젝트 중단으로 매출 감소가 불가피하며 연간 가이던스도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기존 진행 프로젝트 업스코핑 물량, 단납기 플랜트 및 MRO 수주 등으로 외형 감소를 일부 만회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럽과 대만 등에서 다수 OSS, 자켓 협상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하반기 양호한 수주 흐름이 예상된다. 기후부는 최근 10년 단위 해상풍력 중장기 입찰 이행안을 발표했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28GW 규모 우선공고가 이뤄지며 2029년부터 27GW 규모 발전지구 경쟁입찰이 진행 예정이다. 대만도 2029년까지 Round 3.4~3.5 총 16GW 규모의 개발 계획을 발표하는 등 주요 시장에서의 중장기적인 수주 확대 기반이 마련되는 모습이다.

2026년 8월 13일 | 기업분석_Earnings Review

BUY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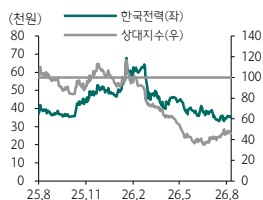
목표주가(12M) 45,000원
현재주가(8.12) 35,450원

Key Data

KOSPI 지수 (pt)	6,579.04
52주 최고/최저(원)	67,900/33,000
시가총액(십억원)	22,757.6
시가총액비중(%)	0.42
발행주식수(천주)	641,964.1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2,080.0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77.6
외국인지분율(%)	21.28
주요주주 지분율(%)	
한국산업은행 외 1인	51.11
국민연금공단	6.88

Consensus Data

	2026	2027
매출액(십억원)	98,328.6	99,715.6
영업이익(십억원)	9,789.1	13,711.2
순이익(십억원)	5,873.0	8,382.5
EPS(원)	9,011	12,849
BPS(원)	82,617	94,534

Stock Price**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액	93,398.9	97,429.3	97,549.0	97,689.2
영업이익	8,364.7	13,490.6	7,953.7	9,918.8
세전이익	5,256.5	11,586.9	5,461.1	7,469.6
순이익	3,491.7	8,544.9	4,042.3	5,602.2
EPS	5,439	13,311	6,297	8,727
증감율	흑전	144.73	(52.69)	38.59
PER	3.69	3.55	5.63	4.06
PBR	0.32	0.63	0.44	0.40
EV/EBITDA	6.48	5.79	7.13	6.44
ROE	9.22	19.40	8.09	10.27
BPS	62,177	75,035	80,705	89,202
DPS	213	1,542	230	250



Analyst 유재선 jaeseon.yoo@hanafn.com
RA 박시현 boxhyun@hanafn.com

한국전력 (015760)**특이사항 없이 부진했던 실적****목표주가 45,000원, 투자의견 매수 유지**

한국전력 목표주가 45,000원,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한다. 2분기 영업실적은 시장 기대치를 하회했다. 지난 분기에 이어 RPS 관련 비용이 늘어나며 구입전력비가 증가한 영향으로 추정된다. 연간 RPS 비용은 RPS 의무비율 상승폭 이상 크게 증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하반기는 안정된 추세가 예상된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빠른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SMP가 3분기 들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 단기 비용 부담 해소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2026년 기준 PER 5.6배 PBR 0.4배다.

2Q26 영업이익 1.1조원(YoY -47.2%)으로 컨센서스 하회

2분기 매출액은 21.9조원으로 전년대비 0.1% 감소했다. 전력판매량은 산업용 수요 감소로 전년대비 1.0% 감소했고 판매단가도 0.7% 하락했다. 전기요금 인하 효과로 2021년 이후 처음으로 평가 하락이 현실화되었다. 영업이익은 1.1조원으로 전년대비 47.2% 감소했다. 연료비는 4.9조원으로 14.1% 증가했고 구입전력비는 8.5조원으로 1.3% 감소했다. 원자재 및 환율 상승, 원자력 발전소 이용률 하락으로 연료비가 크게 증가했다. 구입전력비는 기저 발전 비중 소폭 감소에도 SMP 약세로 전년대비 개선되었다. 유연탄 발전소 이용률은 45.0%로 전년대비 7.2%p 상승했고 원자력 이용률은 전년대비 8.4%p 감소한 74.0% 수준으로 추정된다. 기타영업비용 증가가 실적 둔화의 주요 원인으로 추정되며 인건비 등 기타 요소가 전년대비 늘어난 영향이다.

환율 하락은 긍정적. 다만 아직은 증익을 논하기 이른 시점

계획예방정비 일정을 감안하면 원자력 이용률은 하반기 평균 80% 내외로 추정된다. 가동 재개를 준비 중인 일부 원전의 정비 종료 시점에 따라 2027년 이용률 회복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송전제약이 발생하고 있는 일부 지역에서 인프라 확충 시 전력 Mix 개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1,400원대 초반으로 내려온 환율은 연료비와 구입전력비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지만 150원/kWh을 상회하고 있는 SMP 영향을 극복하기에는 다소 부족할 전망이다. 실적 회복을 위해서는 에너지 원자재 가격 하락이 필요한 상황이며 하반기 구체화될 지역별 차등요금제에서 산업용 전기요금 추가 인하가 현실화될 것인지 지켜봐야 한다.

2026년 08월 13일 | 기업분석_기업분석(Report)

BUY (유지)

목표주가(12M) 610,000원(하향)
현재주가(8.12) 396,000원

Key Data

KOSPI 지수 (pt)	6,579.04
52주 최고/최저(원)	626,000/279,500
시가총액(십억원)	5,073.2
시가총액비중(%)	0.09
발행주식수(천주)	12,811.0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135.7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59.3
외국인지분율(%)	14.84
주요주주 지분율(%)	
한미사이언스 외 5인	50.09
국민연금공단	9.87

Consensus Data

	2026	2027
매출액(십억원)	1,687.0	1,772.0
영업이익(십억원)	300.9	292.2
순이익(십억원)	232.6	232.7
EPS(원)	16,486	16,569
BPS(원)	114,471	129,585

Stock Price**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액	1,495.5	1,547.5	1,716.5	1,869.1
영업이익	216.2	257.8	284.2	279.4
세전이익	171.3	213.5	285.2	305.0
순이익	121.3	169.6	197.6	214.6
EPS	9,470	13,235	15,426	16,751
증감율	(17.04)	39.76	16.55	8.59
PER	29.62	34.15	26.77	24.66
PBR	3.19	4.48	3.55	3.15
EV/EBITDA	12.93	17.38	14.52	14.51
ROE	11.89	14.53	14.63	13.88
BPS	88,067	100,935	116,497	131,266
DPS	1,250	2,000	2,000	2,000



Analyst 김선아 seonakim@hanafn.com
RA 이희경 hk.lee@hanafn.com

한미약품 (128940)**비만 파이프라인 성과와 MSD의 반전을 기다리며****북경한미 실적 충격으로 전체적인 실적 감소**

2Q26 실적은 연결 매출 4,672억원(YoY+29.3%), 영업이익 1,311억원(YoY+116.9%, OPM 28.1%)이다. Lilly향 기술이전에 따른 선금금 영향으로 매출 및 영업이익이 YoY 크게 성장한 것처럼 보였지만, 북경한미의 실적이 계절적 비수기를 고려하여도 매우 부진했던 이유로 주가는 크게 하락했다. [북경한미]는 매출액(YoY-30%, QoQ-43%) 및 영업이익(YoY-97%, QoQ-98%) 모두 감소하였고, 세전 약11.4억원 손실로 적자전환 하였다. [정밀화학]은 기존의 API 생산에서 CDMO로 매출 비중을 조절하며 이익률을 높이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매출 QoQ+10.8%, 이익 QoQ+277.2% 성장하여 올해 2개 분기 연속 흑자를 보여주고 있다. [한미약품 별도]는 제품과 상품 매출 모두 QoQ 3~4%의 성장을 보여주어 비수기임을 감안하면 양호한 실적이다.

하반기는 계절적 성수기로 진입하며 전체적인 영업 실적 개선 가능성 높음

하반기는 한미약품 별도와 북경한미 모두 계절적 성수기로 진입한다. 다만 3Q 보다는 본격적으로 환절기가 시작되는 4Q 실적을 더 기대할 만 하다. 특히 한미약품 별도로는 '25년부터 도입된 코프로모션 품목(에피스/Ferring/Teva/ Boehringer Ingelheim)의 매출이 분기마다 상승하고 있고, 에페글레타나이드가 출시될 예정이니 소액이여도 분명한 매출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북경한미는 중국의 집중구매제도 영향이 적은 제품 개발과 마케팅 성공을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정밀화학은 CDMO로의 전환이 순조로운 모습이라 하반기까지 분기별 흑자 유지를 기대할 만 하다.

목표주가 하향, 추가 기술이전과 Cirrhosis 데이터 확인으로 반전을 노려야

'27년 EBITDA를 WACC 9.2%로 현재화하여, 목표 EV/EBITDA 16.1배, 신약 비영업가치 2조 4,886억원을 적용했다. 이번 중국 실적 충격은 집중구매제도 영향이 주요인이므로, 이 영향의 종료 시점과 개선 방안이 불분명하여 매출 추정치를 하향 조정하였다. 북경한미는 매출 채권이 크게 증가한 것이 지적되었으나, 작년 12월 말 3억2,000만위안에서 2개월 만에 9,000만위안까지 감소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Aptose의 100% 자회사 편입으로 개발비를 연결 실적에 반영함으로써 이익률 추정치를 하향 조정하였다. 다만 Aptose 인수에 따른 tuspetinib 가치를 신약 비영업가치에 추가(3,045억원)하였다. 주가 회복을 위해서는 북경한미의 실적 정상화와 Aptose 비용 절감 정책이 중요하다. 한편 비만 치료제(HM15275, HM17321 등) L/O 가능성은 여전히 높게 보고 있다. 그리고 MSD가 8/4 일 2Q26 실적발표에서도 에피노페그듀타이드의 Key Read out 계획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Cirrhosis(F4) 임상(NCT06465186)의 종료 예정일이 '26.08.06이었다. 이를 포함해 전체 MASH 임상을 종합하여 공개할 것 같고, 여기서 반전이 있기를 바란다. 가까운 관련 학회 일정은 11/5일 AASLD(미국간학회)가 있는데, 일정이 빠듯하고 이 때가 실적 발표 시즌이기도 해서 학회와 무관하게 데이터 공개할 가능성도 높다.

BUY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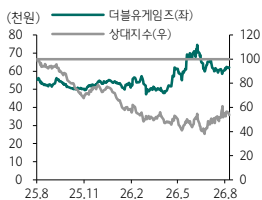
목표주가(12M) **80,000원**
 현재주가(8.12) **62,000원**

Key Data

KOSPI 지수 (pt)	6,579.04
52주 최고/최저(원)	74,600/47,300
시가총액(십억원)	1,312.8
시가총액비중(%)	0.02
발행주식수(천주)	21,173.5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85.3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5.6
외국인지분율(%)	21.54
주요주주 지분율(%)	
김기람 외 5인	43.28
국민연금공단	8.22

Consensus Data

	2026	2027
매출액(십억원)	841.5	893.3
영업이익(십억원)	285.7	313.1
순이익(십억원)	251.8	262.2
EPS(원)	9,227	10,746
BPS(원)	69,941	80,059

Stock Price**Financial Data**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액	633.5	719.9	835.7	850.5
영업이익	248.7	232.1	278.1	268.8
세전이익	314.8	241.1	330.7	310.3
순이익	187.2	131.3	198.7	184.7
EPS	8,708	6,106	9,384	8,725
증감률	25.93	(29.88)	53.68	(7.02)
PER	6.19	8.78	6.61	7.11
PBR	0.97	0.90	0.88	0.80
EV/EBITDA	3.03	3.30	2.57	2.09
ROE	18.69	11.33	15.31	12.41
BPS	55,622	59,574	70,462	77,768
DPS	1,200	1,200	1,543	1,200



Analyst 이준호 junholee95@hanafn.com

2026년 8월 13일 | 기업분석_Earnings Review

더블유게임즈 (192080)**환율 대비 아쉬운 실적****2Q26 Re: 컨센서스 부합**

더블유게임즈는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 2,106억원(+22.5%YoY, +2.8%QoQ), 영업이익 701억원(+29.0%YoY, +2.3%QoQ, OPM 33.3%)으로 컨센서스에 부합했다. 2분기 소셜카지노 매출액은 1,580억원(+14.3%YoY, +1.9%QoQ)이다. 결제액 기준으로는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DTC 매출 비중이 47.5%로 크게 확대되며 수익성은 증가했다. 2분기 아이게이밍 매출액은 255억원(+17.3%YoY, +1.5%QoQ)이다. 2분기 캐주얼 매출액은 271억원(+9.4%QoQ)을 기록했다. 팍시게임즈의 시 랩 기반 신규 게임 매출 비중이 81% 확대됐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결제액 기준으로 성장세가 소폭 둔화되었다. 영업비용은 1,406억원(+19.5%YoY, +3.0%QoQ)을 기록했다. 마케팅비는 453억원(+41.8%YoY, -2.0%QoQ)이다. 특이사항은 기타변동비다. 기타변동비는 206억원(+111.6%YoY, +35.5%QoQ)으로 전분기 대비 크게 증가했다. 영국 아이게이밍 RGD가 4월 1일부로 21%에서 40%로 인상된 영향이다. 슈퍼네이션향 마케팅비를 효율화하여 수익성을 방어한 것으로 파악된다.

캐주얼 부문의 고성장이 필요

더블유게임즈는 2026년 영업수익 8,357억원(+26.0%YoY), 영업이익 2,781억원(+19.8%YoY, OPM 33.3%)을 기록할 전망이다. 소셜카지노 부문의 DTC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다만 2분기 수익성 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이익을 확인했으나 결제액 성장이 뒷받침되지 못하여 강달러(2분기 평균 1,501원)의 수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한 부분은 다소 아쉽다. 현재까지 3분기 달러-원 평균 환율은 1,471원이며 8월 12일 기준 1,417원이다. 환율 기저를 상쇄시키기 위해서는 결제액의 성장이 필요하다. 2026년 소셜카지노는 글로벌 시장이 -5%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슈퍼네이션은 RGD 증세로 인해 올해는 시장 상황을 지켜보는 시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팍시게임즈가 이끄는 캐주얼 부문에서 기대 이상의 고성장이 필요하다.

투자의견 Buy, 목표주가 80,000원 유지

투자의견 Buy, 목표주가 80,000원을 유지한다. 소셜카지노에서 안정적인 현금흐름이 창출되는 가운데 캐주얼 게임의 매출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공식적으로 시 랩을 활용한 성과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성장세가 가속화된다면 리레이팅이 동반될 것으로 전망한다. DDI 지분 인수는 3분기 내 SEC 제출을 계획하고 있다. 딜 클로징과 함께 주주환원 확대를 기대한다.

2026년 8월 12일 | Global Equ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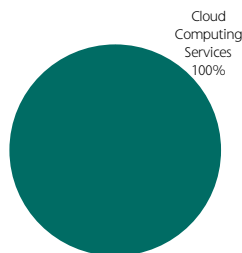
미국

TP(컨센서스) 138.84 USD
CP(08.11) 90.32 USD

Key Data

국가	UNITED STATES
상장거래소	NASDAQ GS
산업 분류	정보기술
주요 영업	IT 서비스
홈페이지	www.coreweave.com
시가총액(십억USD)	49.5
시가총액(조원)	69.8
52주최고/최저(USD)	153.20/60.55
주요주주 지분율(%)	
Magnetar Financial LLC	11.71
엔비디아	10.55
주가상승률	1M 6M 12M
절대	1.6 (5.1) (39.3)
상대	(0.4) (16.4) (59.2)

매출구성



Financial Data

(백만 USD)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	1,915	5,131	12,778	25,979
영업이익	356	666	1,021	3,946
순이익	(65)	(606)	(2,133)	(817)
EPS(USD)	(5.96)	(1.39)	(3.79)	(1.42)
ROE(%)	-	-	(62.2)	(40.2)
PSR(배)	-	6.1	3.9	1.9
PBR(배)	-	10.8	13.3	14.4
배당률(%)	-	0.0	0.0	0.0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Analyst

강재구 jaekoo.kang@hanafn.com

RA 이재은 jaeeunlee@hanafn.com

CoreWeave, Inc.(CRWV.US)

FY 2Q26: 엔비디아의 전진기지 성장성과 수익성 양호

가격 결정력과 영업 레버리지 확인 긍정적

코어위브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을 유지한다. 코어위브는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한 이번 분기 실적과 다음 분기 가이드를 제시했다. 시간 외 주가는 15% 상승했다. 시장참여자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한 부분은 수익성 개선일 것이다. 견조한 수요 덕분에 코어위브의 가격 결정력이 강하다. 신제품 베라 루빈의 높은 가격과 수익성은 코어위브의 이익 향상에 상당 부분 도움이 됐다. 구형 제품의 판매 단가도 1년 전 수준이거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구세대 GPU는 기존 계약이 끝나도 재계약하거나, 추론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다. GPU가 한번의 계약으로 경제적 수명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초기 계약에서 투자비 관련 부채를 회수한 이후에도 추가적인 매출과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 장기적인 수익성 향상에 긍정적인 부분이다.

코어위브의 추론 서비스의 성장도 이익에 긍정적인 모멘텀이다. 예약된 연간 반복 매출은 100만 달러에서 1억 달러 이상으로 확대됐다. 코어위브는 연말까지 2.5억 달러 이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추론 서비스는 계약이 종료된 GPU 활용도를 높이며, GPU 임대 이외의 매출원을 확장할 수 있다. 서비스 매출이 늘면서 수익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엔비디아의 AI 금융 플랫폼도 코어위브에겐 우호적인 모멘텀

엔비디아의 AI 인프라 금융 플랫폼 구축도 코어위브에게 긍정적일 것으로 기대한다. 엔비디아가 최근 주요 6개 금융기업과 AI 인프라 투자를 위한 금융 플랫폼 구축을 발표했다. GPU를 장기간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금융자산으로 평가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인프라 자산을 확보해야 하는 코어위브의 자금조달에 우호적일 것이다. GPU 담보가치와 경제적 수명에 대한 금융기관의 신뢰가 높아질 경우 더 많은 자금을 더 낮은 비용으로 조달할 수 있을 것이다. 투자 부담을 낮추고 수익성을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는 요인이다.

컨센서스 상회한 FY 2Q26 실적

코어워브의 FY 2Q26 실적은 매출액 26억 달러(YoY +112%, QoQ +24%), 조정 EBITDA 15억 달러(YoY +101%, QoQ +31%), 조정 영업이익 1.3억 달러(YoY -36%, QoQ +510%), EPS -1.03 달러(QoQ +7%)다. 각각 컨센서스를 1%, 6%, 55%, 15% 상회했다. 주주잔고는 1,040억 달러(YoY +246%)로 확대됐다. 3분기 초에는 250억 달러 규모의 신규 고객 기여분이 추가됐다. 전력과 인프라 측면에서는 활성 전력이 분기 중 역대 최고 수준인 500MW 늘어났다. 2분기 총 1.5GW를 기록했으며, 이 중 300MW는 6월 한 달에 집중적으로 반영됐다. 계약 전력은 3.7GW로 확대됐다.

2분기 조정 EBITDA 마진은 59%였으나 조정 영업이익률은 5% 수준이다. GPU 자산에서 나오는 현금흐름 자체는 견조하지만, GPU와 데이터센터의 초기 대규모 자본지출이 감가상각비로 인식되며 영업이익을 크게 낮추는 구조 때문이다. 2분기 순손실은 5.7억 달러로 전년 동기(1.3억 달러) 대비 확대됐다. 180억 달러를 신규 조달하며 이자비용이 6.4억 달러(YoY +140%)로 급증했기 때문이다. 회사는 지난 1년간 가중평균 조달금리를 약 300bp 낮춰 연간 약 11억 달러의 이자비용을 절감했다고 설명했다.

2분기 영업활동현금흐름은 6.8억 달러를 기록했지만, 자본지출이 64억 달러에 달해 잉여현금흐름은 -57억 달러를 나타냈다. 현금창출력은 견조하지만, 자본지출이 이를 크게 상회하는 구간이다.

시장 예상보다 강한 FY 3Q26 가이던스

코어워브는 견조한 수요를 반영해 예상을 상회하는 3분기 가이던스를 제시했다. 중간값 기준 3Q26 매출 전망은 35.3억 달러(YoY 159%, QoQ +37%)다. 보수적으로 2분기 EBITDA 마진을 적용했을 때 조정 EBITDA는 21억 달러(YoY +148%, QoQ +38%)다. 각각 컨센서스를 1%, 4% 상회했다. FY 2026 연간 가이던스도 매출 124억~132억 달러(기존 120~130억 달러), 연말 Run-rate 매출 185억~195억 달러(기존 180억~190억 달러)로 상향했다.

가이던스 상향 배경은 2분기에 나타난 영업레버리지다. 규모가 커질수록 신규 증설분이 전체 설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아지고 기존 계약 매출은 그대로 유지되며 수익성이 개선된다. 조정 영업이익은 1분기 2,100만 달러에서 2분기 1.3억 달러(QoQ +510%)로 급증했다. CEO는 3분기와 4분기에도 마진 확대가 이어져 4분기에는 조정 영업이익률이 10%대 초반 수준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규 계약의 단가와 믹스도 개선되고 있다. 2분기 신규 체결 계약의 기여마진은 최근 분기 대비 5~10%p 개선됐다. Vera Rubin, Blackwell 등 신규 제품군의 수요와 가격이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구세대 제품군 가격도 1년 전 수준에서 방어되는 덕분이다. 7월 단행한 가격 인상(약 25%) 효과가 아직 반영되지 않아 향후 추가 반영 여지가 있다. GPU 단품보다 이익이 높은 부가서비스(스토리지, CPU, 네트워킹, 소프트웨어)의 매출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부가서비스의 연간 반복 매출은 이미 4억 달러를 넘어섰다.

다만 자본지출 가이던스도 350억~390억 달러로 함께 상향된 만큼, 외형 성장과 자본비용 부담이 동시에 커지는 구조는 유지될 전망이다.

GPU 클라우드 인프라 중심에서 매니지드 인퍼런스, 부가서비스로 다변화

핵심 GPU 클라우드 인프라 매출이 전사 매출 26억 달러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운데, 추론 서비스(managed inference)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추론 서비스 사업의 연간 반복 매출은 출시 몇 개월 만에 100만 달러에서 1억 달러 이상으로 급증했다. 회사는 연말 연간 반복 매출 목표를 최소 2.5억 달러로 상향했다.

고객 기반은 프론티어 AI 랩 중심에서 산업(Caterpillar), 생명과학(Isomorphic Labs), 금융(Flow Traders, IMC), 공공/국방(Leidos) 등으로 다변화하고 있다. 2분기에는 Bentley Systems, Sunday Robotics가 신규 고객으로 추가됐고, Cognition, Databricks, Hudson River Trading 등 기존 고객과의 계약도 확대됐다.

2026년 8월 12일 | Global Equ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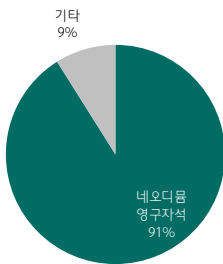
중국

TP(컨센서스) 27.55 HKD
CP(8.11) 17.50 HKD

Key Data

국가	CHINA
상장거래소	Hong Kong
산업 분류	산업재
주요 영업	전기 장비
홈페이지	www.jlimg.com.cn
시가총액(십억HKD)	41.2
시가총액(조원)	7.4
52주최고/최저(HKD)	29.3/15.74
주요주주 지분율(%)	
Jiangxi Ruide Venture	28.31
Ganzhou Industrial	5.05
주가상승률	1M 6M 12M
절대	4.1 (16.4) (7.7)
상대	(3.2) (11.9) (11.9)

매출구성



Financial Data (백만 CNY)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	6,763	7,718	10,824	13,630
영업이익	269	776	1,118	1,452
순이익	291	706	997	1,298
EPS(CNY)	0.2	0.5	0.7	0.9
EPS(YoY, %)	(47.6)	136.4	39.2	30.7
ROE(%)	4.1	9.7	12.6	14.2
PER(배)	33.4	31.9	20.8	15.9
PBR(배)	1.4	3.0	2.5	2.3
배당률(%)	1.6	1.3	2.6	3.4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Analyst 송예지 yeajisong@hanafn.com

금력영자(6680.HK)

2Q26 Pre: 희토류 강세 속 견조한 실적

제품 믹스 개선으로 견조한 이익 성장 예상

금력영자의 2Q26 잠정 매출은 25.2억위안으로 YoY +44% 증가, 잠정 순이익은 최대 2.7억 위안으로 YoY +85% 증가할 것으로 예고했다. 1H26 EV-자동차 부품향 매출이 YoY +30% 증가하고, 로봇-산업용 서보모터향 매출이 YoY +90% 증가하며 외형 성장을 견인한 가운데, 제품 믹스 개선에 따라 수익성이 개선된 것으로 추정된다. 1H26 주식보상 및 H주 전환사채 관련 비용 1.21억위안이 신규 발생하고 비경상손익 기여도 전년 대비 감소했음에도 조정순 이익은 YoY +50~97%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본업의 이익 개선세가 두드러질 전망이다.

희토류 가격 강세에 따라 안정적 수익성 유지 중

경영진은 2Q26 GPM이 1Q26과 유사한 20%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금력영자는 원재료 가격에 연동한 cost-plus 방식으로 판가를 조정하고 있어, 희토류 가격이 급등락하지 않고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갈 경우 선제적으로 확보한 저가 원재료 재고와 판가 인상 효과가 맞물리며 수익성에 우호적으로 작용한다. 최근 희토류 가격은 공급 제약을 바탕으로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1H26 중국 네오디뮴 평균가격은 73.9만위안/톤으로 YoY +72% 상승했으며, 하반기에도 희토류 가격은 견조한 흐름을 이어갈 전망이다. 중국 정부의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와 광산 및 재활용 원료의 제한적인 공급이 지속되는 가운데, 자동차-산업용 로봇의 계절적 성수기 진입에 따른 자석 업체들의 원재료 재고 확충 수요가 가격을 지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장기적으로도 전기차와 휴머노이드 로봇 등 고성능 네오디뮴 영구자석의 수요 확대가 희토류 가격의 하방을 지지할 것으로 보인다.

휴머노이드향 매출은 2027부터 본격화, 중장기 성장성에 주목

금력영자의 휴머노이드 로봇향 제품은 이미 소량 납품을 개시한 것으로 파악된다. 4Q26부터 소규모 매출 기여가 시작되고, 2027년부터 고객사 양산 확대와 함께 보다 유의미한 매출 성장이 가능할 전망이다. 단기적으로 휴머노이드 로봇향 매출 기여도는 제한적이거나, 시장 확대에 따라 2030년에는 전사 매출의 10% 초반까지 비중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로봇용 로터 모듈은 양산 이후 30% 이상의 GPM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돼, 외형 성장 뿐 아니라 중장기 수익성 개선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또한, 희토류는 향후 미-중 갈등 등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시 중국의 핵심 전략 자원 및 협상 카드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희토류 밸류체인에 대한 시장의 관심을 높여 동사 추가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금력영자의 주가는 역사적 중하단 수준 P/E(26년 12MF 21배)에서 거래 중으로 안정적인 본업 성장과 휴머노이드 로봇향 신규 수요 확대를 감안하면 중장기 관점에서 긍정적인 주가 흐름이 기대된다.

단기 투자유망종목

글로벌투자분석실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증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삼성전자 (005930.KS)	8/10	231,000	255,500	10.61%	- AI 수요 견조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DDR4 가격상승과 더불어 NAND 업황 개선 맞물려 - DDR 및 NAND 가격 상승은 레거시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에게 긍정적
삼성전기 (009150.KS)	8/10	1,278,000	1,335,000	4.46%	- AI 서버용 고용량 MLCC 수요가 확대되는 가운데 공급사들의 증설은 제한적 - AI 가속기용 FCBGA의 대형화·고다층화로 구조적 공급 부족 장기화 전망
한화에어로스페이스 (012450.KS)	8/10	1,097,000	1,156,000	5.38%	- K9 자주포·천무 중심의 유럽·중동 수출 확대로 지상방산 수주잔고 약 39.7조원까지 증가 -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 성장과 수주 기대감 재차 확대될 전망
에이피알 (278470.KS)	8/10	384,500	397,000	3.25%	- 북미·유럽 고성장과 오프라인 유통망 확대를 기반으로 2026년 매출 가이드선 상향 - 미국/유럽 재고가 안정화되면서 항공운송비 부담이 상당히 완화될 전망
S-Oil (010950.KS)	8/10	137,600	141,500	2.83%	- 정제마진 강세와 윤활기유 스프레드 급등으로 3Q26 영업이익 1.08조원 예상 - 하반기 모멘텀 1) 윤활기유 추가 이익 확대 2) OSP 마이너스 재확인 3) 유가 안정
CJ제일제당 (097950.KS)	8/10	204,500	186,900	-8.61%	- 바이오 부문의 판가 회복과 원가 부담 완화로 하반기 수익성 개선이 본격화될 전망 - 미주 중심의 글로벌 식품 성장과 비주력 사업 재편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기대
GS건설 (006360.KS)	8/10	31,650	35,200	11.22%	- 건축·주택 원가를 정상화와 비용 선반영 효과로 본격적인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 - 하반기 데이터센터 수주 가능성이 실적 추정치와 밸류에이션을 높일 핵심 모멘텀
세아베스틸지주 (001430.KS)	8/10	41,600	40,800	-1.92%	- 오일&가스·방산·반도체 등 전방 수요 회복과 공격적 영업전략으로 특수강 판매 증가 - 미국내 특수합금 공장과 사우디 무게목강관 공장의 사업 본격화로 외형성장 기대
RFHIC (218410.KQ)	8/10	48,450	54,000	11.46%	- 미국 어퍼 C밴드 주파수 경매와 5G 투자 재개에 따른 GaN TR 수요 확대 예상 - AI-RAN 투자 확대와 자회사 RF머트리얼즈의 실적 성장을 기반으로 호실적 기대
에이유브랜즈 (481070.KQ)	8/10	18,150	19,100	5.23%	- 중국 중심의 해외 매출 고성장으로 글로벌 외형 확대가 본격화될 전망 - 사계절 제품군 확대와 직영·온라인 중심의 고마진 구조로 수익성 개선 기대

단기 투자유망종목 수익률

주간(This Week)		누적(YTD)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4.42%	-0.64%p	+71.46%	+14.37%p

주: BM은 KOSPI, BM대비 누적수익률은 일 평균 종목수익률을 BM과 비교 적용한 후 누적 계산. 주기 단위로 Rebalancing. 손절가(Loss cut)는 종가기준 -15%선 적용

중장기 투자유망종목

글로벌투자분석실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증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012450.KS)	8/10	1,097,000	1,156,000	5.38%	- K9 자주포·천무 중심의 유럽·중동 수출 확대로 지상방산 주주잔고 약 39.7조원까지 증가 -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 성장과 주주 기대감 재차 확대될 전망
삼성SDI (006400.KS)	8/10	459,000	485,500	5.77%	- 북미 ESS 라인 본격 가동과 소형전지 가동을 상승으로 하반기 흑자 기조 지속 기대 2Q26 7개 분기 만의 흑자 전환에 이어 2027년 영업이익 1.48조원 전망
팬오션 (028670.KS)	8/10	6,040	5,800	-3.97%	- BDI 강세와 탱커 운임 상승으로 벌크·탱커 부문 이익이 확대되며 호실적 기대 - SK해운 인수 VLCC의 실적 기여와 중장기 운임 강세가 추가 성장 모멘텀으로 작용
삼성전자 (005930.KS)	8/3	262,500	255,500	-2.67%	- AI 수요 견조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DDR4 가격상승과 더불어 NAND 업황 개선 맞물려 - DDR 및 NAND 가격 상승은 레거시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에게 긍정적
삼성전기 (009150.KS)	8/3	1,142,000	1,335,000	16.90%	- AI 서버용 고용량 MLCC 수요가 확대되는 가운데 공급사들의 증설은 제한적 - AI 가속기용 FCBGA의 대형화·고다층화로 구조적 공급 부족 장기화 전망
아모레퍼시픽 (090430.KS)	8/3	130,000	135,700	4.38%	- 북미·유럽과 코스알렉스의 고성장으로 글로벌 실적 개선세 본격화 - 지역·채널 다각화 성과를 기반으로 글로벌 멀티브랜드 기업으로의 밸류에이션 재평가 기대
종산 (103140.KS)	8/3	71,200	82,200	15.45%	- 전기동 가격 강세에 따른 메탈 이익과 해외 신동 자회사 수익성 개선 기대 2분기 이연된 방산 매출의 3분기 인식으로 실적 반등 예상
SK이노베이션 (096770.KS)	7/20	121,400	122,400	0.82%	- 윤활기유 호조와 SK온 적자 축소에 힘입어 2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 상회 전망 - 정제마진 강세와 그룹3 윤활기유 공급 부족으로 2026년 사상 최대 영업이익 기대
KB금융 (105560.KS)	7/13	184,400	166,000	-9.98%	2분기 추정 순익 1.97조원으로 2조원에 육박해 지주사 설립 이후 분기 최대 순익 예상 - 홍콩 ELS 과징금 이슈 해소로 주주환원 확대 및 밸류에이션 매력 부각
삼양식품 (003230.KS)	7/1	1,119,000	1,204,000	7.60%	- 미주·중국·유럽 중심의 해외 매출 고성장과 밀양2공장 가동을 상승으로 실적 성장 기대 - 중국 신공장 가동 및 추가 생산시설 검토로 해외 비중 확대와 단기 실적 모멘텀 부각

중장기 투자유망종목 수익률

분기(3Q)		누적(YTD)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19.08%	+1.52%p	+38.14%	-18.99%p

주: BM은 KOSPI. BM대비 누적수익률은 일 평균 종목수익률을 BM과 비교 적용한 후 누적 계산. 분기 단위로 Rebalancing. 손절가(Loss cut)는 종가기준 -15%선 적용

ETF 투자유망종목

해외주식분석실



국내 ETF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KODEX 미국시테크 TOP10 (485540)	2026.07.16	16,205	15,730	-2.9%	- 미국에 상장된 대형 기술주 중 AI 관련 키워드 유사성이 높은 10개 종목을 선별하여 유동시가총액과 LLM 스코어링을 합산하여 편입 비중을 산정. 1위~3위 기업은 각각 20% 비중으로 편입해 집중도를 높인 구조 - 현재 핵심 편입 종목은 엔비디아,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이며, AI 산업 트렌드 변화에 맞춰 새롭게 부상하는 AI 기업들을 포트폴리오에 반영할 수 있는 구조
WON 초대형IB &금융지주 (0154F0)	2026.02.24	15,160	12,250	-19.2%	-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 및 밸류업 프로그램의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되는 대형 증권사와 주요 금융지주 등 핵심 금융주에 집중 투자하는 패시브 ETF - 초대형 IB의 구조적 성장성과 금융지주의 안정적인 배당 매력을 동시에 추구. 미래에셋증권, 한국금융지주, KB금융, 신한지주 등 국내 금융 섹터를 대표하는 우량 종목들로 구성
KODEX AI반도체 TOP2플러스 (395160)	2026.02.27	29,560	35,070	18.6%	6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4) 양산 본격화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및 한미반도체 등 국내 AI 반도체 밸류체인 핵심 기업에 집중 투자 - 온디바이스 AI 확산과 AI 서버 수요 폭증으로 인한 메모리 수급 불균형 속에서, 차별화된 기술력을 보유한 국내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의 실적 개선 및 가치 재평가 기대
PLUS 글로벌 HBM반도체 (442580)	2026.07.16	106,895	92,380	-13.6%	- HBM(고대역폭메모리) 밸류체인인 핵심 제조사와 장비·부품·소재 기업을 시가총액 가중방식으로 편입하는 HBM 집중 테마 ETF -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3사 합산 비중이 75% 수준으로 핵심 제조사에 집중된 구조이며, 그 외 글로벌 장비, 부품 관련 기업까지 편입해 HBM 성장 모멘텀 전반의 수혜 기대
ACE 고배당주Plus 커버드콜액티브 (0199C0)	2026.07.16	9,980	9,230	-7.5%	- 고배당주 80%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각각 10% 비중으로 편입하여 고배당주 포트폴리오로 시장의 흐름을 추종할 수 있는 커버드콜 액티브 ETF - 포트폴리오의 30% 비중까지 콜옵션을 매도하는 구조로 월 분배금 재원을 마련하고 비교سه 배당 종목을 편입하여 배당과 절세를 함께 추구. 향후 국내 데일리 옵션(ODTE) 도입 시 추가적인 배당 자원 확보 가능. 액티브 운용방식으로 시장 상황에 따라 커버드콜 비중 조절
TIME 글로벌우주테크 &방산액티브 (478150)	2026.07.16	21,300	21,330	0.1%	- 우주 산업의 성장과 방산기업들의 안정적인 실적 모멘텀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액티브 ETF로 시장 상황에 맞게 편입 종목과 비중을 유연하게 조정 - SpaceX 상장 이후 본격화되는 우주 산업 투자 사이클과 글로벌 주요국들의 국방비 증액 추세에 따른 구조적 수혜를 누릴 것으로 기대
TIGER 글로벌 AI사이버보안 (418670)	2026.07.16	18,430	18,495	0.4%	- 글로벌 기업 중 사이버보안 연관 산업에서 매출이 50% 이상 발생하는 기업을 시가총액 가중방식으로 편입하는 패시브 ETF - AI 확산 과정에서 사이버보안에 대한 인식이 AI로 인한 시장 잠식 우려 대상에서 AI 도입 시 필수 인프라로 전환됨에 따라 AI 보안 기업들의 가치 재평가 기대
KODEX 미국 AI전력핵심인프라 (487230)	2026.07.16	23,200	20,570	-11.3%	- AI 성장 과정 속에서 전력 인프라라는 병목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핵심 분야로 관련 기업들은 공급자 우위 구조 속에서 수익성이 개선되는 흐름 - 주요 빅테크의 파트너로 선정되고 있는 미국 전력 생산·송배전·데이터센터 핵심 10개 종목에 집중 투자

주1: 기준가는 편입일 당일의 종가

주2: 전일종가는 한국 시간으로 전영업일 15시 30분 기준

Global ETF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CHAT (생성형 AI 및 기술)	2026.07.16	83.73	87.88	5.0%	• 생성형 AI 관련 기술을 통해 매출을 창출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에 집중 투자하는 ETF로 AI 밸류체인 내 실질적인 성장 모멘텀을 누릴 것으로 기대 • 액티브 운용 방식으로 유연한 포트폴리오 조정이 가능하며 OpenAI와 앤트로픽 지분을 보유한 소프트뱅크그룹과 SK텔레콤을 편입해 비상장 AI 파운데이션 모델 기업에 대한 간접 노출까지 확보한 차별화된 구성이 특징
KBWB (미국 은행)	2026.07.16	98.37	97.87	-0.5%	• IPO와 M&A 시장 회복, AI 인프라 자금조달 확대에 따른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미국 대형은행들에 집중 투자하는 ETF • 미국 금융 섹터는 트럼프 행정부의 금융 규제 완화 기조 속 주주환원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대형은행을 중심으로 실적 성장 국면이 전개될 전망
CBR (사이버 보안)	2026.07.16	91.89	100.60	9.5%	• 사이버보안 기업으로 분류되는 글로벌 기업들을 시가총액 가중방식으로 편입하는 대표적인 사이버보안 테마 ETF • 상위 5개 종목 합산 비중을 40%로 제한하여 대형주에 집중된 구조이면서도 그 외 네트워크 인프라, 사이버 방산 관련 기업까지 함께 편입해 사이버보안 밸류체인 전반에 노출 가능
SPHQ (미국 대형 퀄리티 주식)	2026.03.23	75.80	85.99	13.4%	• 수익성(ROE), 이익의 질(미결제영업자산 변동), 재무 건전성(레버리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S&P500 내 최상위 우량주 100개를 선별해 투자 • 매크로 불확실성 및 실적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에서 탄탄한 펀더멘털을 보유한 기업에 집중해 지수 대비 견고한 하방 경직성과 장기적인 초과 수익 추구
SMH (글로벌 반도체)	2025.11.24	339.12	569.41	67.9%	• 대형주 비중이 높은 대표 글로벌 반도체 ETF. 매출의 50%가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생산 분야에서 발생하는 기업들을 시가총액 가중방식으로 편입 • 엔비디아의 실적과 가이드언스를 통해 AI 산업의 꾸준한 성장 모멘텀 확인. SMH는 NVIDIA와 TSMC가 30% 이상의 비중을 차지. Capex 경쟁 지속 가운데 소비된 AI 시장 확장, 신제품 교체 기반의 견고한 수요 기대 유효
DRAM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2026.06.22	80.72	49.60	-38.6%	• AI 혁명 및 대규모 데이터 처리에 필수적인 컴퓨터 메모리 및 스토리지 밸류체인 관련 글로벌 기업들을 시가총액 가중방식으로 편입한 순수 메모리 테마 ETF • 광범위한 반도체 지수를 추종하는 기존 ETF와 달리, HBM(고대역폭메모리) 및 차세대 DRAM 시장을 선도하는 핵심 제조사에만 집중 투자하여 차별화된 고성장 모멘텀 수혜 기대
GRID (전력망 및 스마트그리드)	2026.07.16	177.67	185.17	4.2%	• 스마트그리드 및 전력 인프라 관련 매출 비중이 높은 글로벌 전력기기 기업들을 포괄적으로 편입하는 전력 인프라 테마 ETF • 미국의 노후화된 전력망 교체 사이클과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급증이 맞물리며 전력 인프라 기업들의 중장기적인 실적 성장 모멘텀 지속될 것으로 기대
XBI (바이오테크)	2026.07.16	152.00	158.03	4.0%	• 미국 바이오테크 종목 약 150개를 동등가중 방식으로 편입하는 분산형 ETF로 중소형 종목들의 임상 및 M&A 이벤트 수혜를 누릴 수 있는 구조 • 글로벌 빅파마들이 특허 만료를 앞두고 파이프라인 확보를 위해 M&A를 비롯한 투자에 적극 나서면서 바이오 업종 전반의 투자 심리 개선 기대

주1: 기준가는 편입일 당일의 종가

주2: 전일종가는 한국 시간으로 전영업일 06시(썸머타임 적용시 05시) 기준

Calendar

글로벌투자분석실

SUN	MON	TUE	WED	THU	FRI	SAT
8.9	8.10	8.11	8.12	8.13	8.14	8.15
- 중국 7월 PPI (3.5%, 이전치 4.1%) - 중국 7월 CPI (0.5%, 이전치 1.0%)	유로존 8월 섀넥스 투자 자기대지수 (0.9, 이전치 -3.1)	- 미국 7월 NFB 소기업 낙관지수 (98.8, 이전치 97.4) - 미국 7월 기준주택매매 (-1.7%, 이전치 -2.4%)	- 한국 7월 실업률 (2.8%, 이전치 2.7%) - 일본 7월 공작기계수주 (50.4%, 이전치 52.7%) - 미국 7월 CPI (3.4%, 이전치 3.5%) - 미국 7월 근원 CPI (2.5%, 이전치 2.6%)	- 일본 7월 PPI (E 7.4%, 이전치 7.1%) - 미국 7월 PPI (E 4.9%, 이전치 5.5%) - 유로존 6월 산업생산 (E 0.0%, 이전치 -0.2%)	- 한국 7월 수출물가지수 (E --, 이전치 48.9%) - 한국 7월 수입물가지수 (E --, 이전치 20.6%) - 유로존 2분기 GDP (E 0.4%, 이전치 0.4%) - 미국 7월 소매판매 (E 0.1%, 이전치 0.2%) - 미국 8월 미시건대 소비자심리지수 (E 54.9, 이전치 54.4)	
8.16	8.17	8.18	8.19	8.20	8.21	8.22
	- 일본 2분기 GDP (E 2.2%, 이전치 1.8%) - 중국 7월 소매판매 (E 1.5%, 이전치 1.0%) - 중국 7월 광공업생산 (E 5.0%, 이전치 5.3%) - 중국 7월 고정자산 (E -6.2%, 이전치 -5.7%) - 일본 7월 광공업생산 (E --, 이전치 4.2%) - 미국 8월 NAHB 지수 (E --, 이전치 34)	- 유로존 9월 ZEW 서베이 (E --, 이전치 26.3) - 미국 7월 주택착공건수 (E --, 이전치 19.0%) - 미국 7월 건축허가 (E --, 이전치 -2.6%) - 미국 7월 설비가동률 (E --, 이전치 76.1%) - 미국 7월 광공업생산 (E --, 이전치 0.1%)	- 일본 6월 핵심기계수주 (E --, 이전치 -12.4%) - 유로존 7월 CPI (E --, 이전치 2.9%)	미국 8월 금리 결정 (E --, 이전치 19.0%)	- 한국 7월 PPI (E --, 이전치 8.6%) - 일본 7월 CPI (E --, 이전치 1.7%) - 일본 8월 제조업PMI (E --, 이전치 54.5) - 일본 8월 서비스업PMI (E --, 이전치 51.2) - 미국 7월 신규주택매매 (E --, 이전치 1.6%) - 미국 8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신뢰지수 (E --, 이전치 90.8)	

주: 1) 괄호 안은 예상치(E), 전월 순, 한국시간 기준 (*E)는 당사 추정치. 2) 유로권, 북미는 전월대비(PCE 디스플레이터는 전년동월대비), 아시아, 신흥국은 전년동월대비 기준, 3) P(속보치), A(잠정치), F(확정치)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Compliance Notice

- 본 조사항목은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중립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담당자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담당자는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